

환경 건강 마음 모두 지켜야죠

서울광역신도회 주최 제2회 한강행복문화축제 연장

가을이 시원하듯 하듯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린 10월 첫날, 3000여 대중이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고 마음공부에 매진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수변마당에 모였다. 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회장 김진관)가 마련한 제2회 한강행복문화축제가 열리는 현장이다. 지난해 열었던 달마마라톤 대회를 확대해 마련된 이날 축제는 마라톤 외에도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발족식,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과 함께 하는 걷기 명상, 어린이 사생대회, 불자연예인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로 꾸며져 참가자들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쟁긴 흥겨운 날이었다.

비가 와도 우리는 달린다!

전날부터 내린 폭우가 잠시 주춤한 오전 9시, 1200여명의 건강(健脚)들이 5km, 10km, 하프코스, 30km 분야로 나누어 달리기 시작했다. 부녀, 부부, 직장동료, 신도회 도반 등 다양한 인연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우렁찬 함성과 함께 빗속을 뛰기 시작했다. 시작부터 온몸을 다해 뛰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몇몇은 달리기보다 우중(雨中) 대화에 더 열중이다. 앞질러 가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응원까지 해주니, 선수인지 응원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출발 30여분이 지나자 5km 참가자들이 결승선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마라톤 출발과 함께 다시 시작된 빗줄기는 가늘어지지 않고 있지만, 환한 표정의 참가자들은 결승점을 향해 거친 숨을 내뿜었다.

과천 청계사 도반 20여명과 함께 참가한 박상관(45·안양시 동안구 평안동)씨는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불교축제가 참색하게 돼 색다른 재미가 있다"면서도 "비가 많이 와서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한강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달마마라톤이 끝나고 열린 한강행복문화축제 개막식, 서울광역신도회 김진관 회장은 "한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한강에서 불자와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친 심신을 달래고 청정한 환경을 만드는 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축제의 취지를 설명한다.

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발족식, 아리수 환경문화연대는 한강을 보전하고 가꾸기 위해 이날 공식 창립된 단체로 26개 환경·신도단체가 모여 탄생한 기구다.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이재승 상임고문(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 모두가 환경 파수꾼이 돼 한강을 지켜나가자"며 "머물사랑 실천 △한강 생태계 복원 △서울시민의 환경권 확보 등을 활동목표로 제시했다."

발족식 후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됐다. 언뜻 보기에 깨끗한 것만 같은 한강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봉은사 청년회 유문관 부회장은 "평소 무심하게 지나치던 한강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많을 줄 몰랐다"며 쓰레기 줍기

에 열심이다. 한국수중환경협회 회원들이 건져 올린 고철과 빈병까지 한데 모으고 쓰레기가 산처럼 쌓였다.

청소가 끝나고 조계종 근교교구 주지 일면, 포교부장 일관 스님 등과 민주당 한화갑 대표, 동국대 조용길 불교대학 원장, 장미화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장을 비롯한 대중은 현장에서 펼쳐진 정토대 빙그릇운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발우공양으로 점심식사를 하기도 했다.

흙의 신선함에 마음이 차분

점심 공양을 마친 참석자들이 다시 무대 앞에 모였다.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의 지도에 따라 걷기 명상을 하기 위해서다.

걷기명상은 몸속의 나쁜 기운들을 배출하고 머리를 채우고 있는 잡념을 비워내는 수행법.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불자와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그런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마가 스님이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고 걸어보라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아직 물이 채 빠지지 않아 군데군데 질퍽거리는 곳이 많았기 때문인지 참가자들은 처음엔 당혹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느껴지는 흙의 신선함과 싱그러움에 마음이 차분해진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모든 집착과 번뇌도 놓아버렸다. 흥부-처제 사이의 이종각(54·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성미순(44·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씨는 "마라톤으로 쌓였던 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다"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마가 스님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여주고 이 시간 이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전해주라"며 걷기명상을 마무리했다.

이날 이외에도 한강과 환경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에서는 20여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그림솜씨를 뽐냈으며, 머무와 다래, 장미화 등 불자연예인들이 진행한 축하 행사 역시 불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됐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한강행복문화축제. 이날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수변마당 축제의 현장처럼 우리 사회에도 갈등과 반목이 아닌 이해와 화합의 마음이 넘쳐나길 기원했다. 글=유철주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1. 걷기명상에 참가한 불자들이 맨발로 수변마당 잔디밭을 걷고 있다. 2. 수중환경협회 회원들이 한강에서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모습. 3. 달마마라톤에 참가한 부부가 나란히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다. 4.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발족식에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5. 참석자와 함께 출발선을 나가고 있는 1200여 달마마라톤 참가자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여기저기 방황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한국 파동 빙의연구원 원장님의 놀라운 의통과 투시능력으로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해결 해 드립니다.

- 첫째,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일은 예고없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지은 전생의 카르마(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 둘째,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의 악기(惡氣)로 누적된 파장으로 인해 자기 앞에 예기치 않은 사고, 질병이 나타난다.
- 치유법 :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 과학적이며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한다.

빙의령인지 확인 - 영가와와의 대화 - 영가천도 환자 스스로 자기 몸속에 영가와 대화할 수 있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세의 장애인지 확인 - 상담 - 현세의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 해결한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되는 것일까?
- 병도 없이 몸이 아프며 백방치료해도 왜 효과가 없을까?
- 집안에 불화와 우환은 왜 끊이지 않을까?
- 원인모를 병과 사업실패, 직장실패, 부부실패, 집안이 편치 못한 것은 왜 그러할까?
- 묘터와 수맥으로 인하여 피해가 없는가?
- 사주에 맞지 않는 이름 사용으로 피해가 없는가?
- 원인모를 불임시에는 태아영가의 장애였는지 의심해 봐야한다.

여러번의 종교의식(천도나 제령)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분 상담

빙의(憑依)로 나타나는 증상

- 내 몸속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 내 자신이 나를 조절할 수 없고
- 누군가 내 머릿속에 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 대표적 증상이며 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행동, 환청, 환시, 우울증, 강박증, 심리불안, 조울증,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우눌림 등 갖가지 증상을 호소한다.

한국 파동빙의연구원
053)767-0036